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하라!

녹색생활실천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

일시 \_ **2011년 11월 18일(금)** 오전9시~저녁9시

장소 \_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 (제4강의실)



# 자료순서

■ 프로그램	4
■ 기초강연	7
■ 지방의제21과 성남의제21	31
■ 참여단체 및 기관	44

## 프로그램

시 간	소요 시간	내 용
9:00 ~ 9:30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출발 및 도착 (성남시청 → 새마을연수원)</li> </ul>
9:30~9:40	10	<p>전체진행 : <b>윤수진</b> 성남의제21 실천분과위원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워크숍 장소 배석 (자료집 배부)</li> </ul>
9:40~9:50	10	<p><b>【개 회】</b></p> <p>사회 : <b>김태진</b> 성남의제21 운영위원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사말씀 ..... 유인상 성남의제21 상임회장</li> <li>참여단체 및 참석자 소개</li> <li>행사안내 등</li> </ul>
9:50 ~ 10:50	1:00	<p><b>【마음열기】</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강 뇌체조(스트레스 관리법)</li> </ul> <p style="text-align: right;"><b>오선주</b> 강사 외</p>
10:50~11:00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TEA 브레이크</li> </ul>
11:00~12:00	1:00	<p><b>【기조강연】</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속가능발전과 녹색실천 강의</li> </ul> <p style="text-align: right;"><b>여진구</b> 생태보전시민모임 대표</p>
12:00~13:00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 식</li> </ul>

## 프로그램

시 간	소요 시간	내 용
13:00~14:00	6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체별 활동보고회 발표 준비</li> <li>※ 동일하게 주어진 재료와 시간내에 단체별, 그룹별 활동발표 준비</li> </ul>
14:00~15:20	1:20	<p><b>【환경단체 활동발표회】</b></p> <p>사회 : 김태진 성남의제21 운영위원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발표순서 추첨</li> </ul>
15:20~15:30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TEA 브레이크</li> <li>※ 모둠안내 및 자리이동</li> </ul>
15:30~18:30	3:00	<p><b>【모둠활동】</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을이 녹색과 만나 그리는 미래</li> </ul> <p style="text-align: right;">에듀플랜 고상준 외</p>
18:30~19:00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휴식 및 식당 이동</li> </ul>
19:00~21:00	2:00	<p><b>【만찬 · 화합의 시간】</b></p> <p>사회 : 송상호 성남의제21 운영위원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외빈 소개</li> <li>• 인사말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남시장</li> <li>..... 시의원</li> </ul> </li> <li>• 단체대표 참가소감 나눔</li> <li>• 만찬</li> <li>• 화합의 시간 (레크레이션)</li> </ul>
2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귀가(새마을연수원 → 성남시청)</li> </ul>

## 인사말씀

기조강연

지속가능발전과 녹색실천

---

기후변화 대응 도시건축  
유럽의 도시에게 길을 묻다

진정한 시민, 진정한 도시(Real People, Real Cities)

---

여진구 \* 생태보전시민모임 대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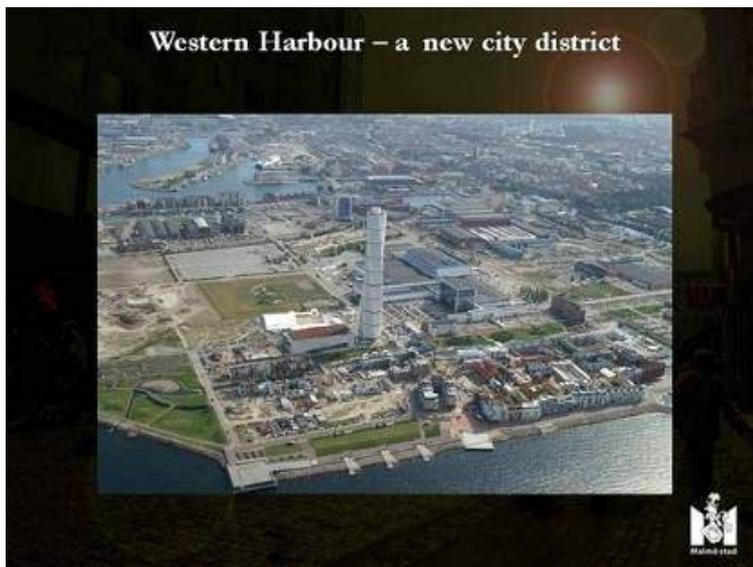
# 기후변화 대응 도시건축 유럽의 도시에게 길을 묻다

진정한 시민, 진정한 도시(Real People, Real Cities)

여진구 (생태보전시민모임 대표)

## 1. 말뫼 신도시 City of Tomorrow (스웨덴)

- ❖ 프로젝트명 Bo01 : 스웨덴어로 '거주하다'를 의미하는 'bo'와 이 프로젝트가 시작된 2001년의 '01'을 따온 것임.
- ❖ 위 치 : 스웨덴 말뫼 도심지로부터 서측 항구 (웨스턴 하버)
- ❖ 거주 인구 : 1,000호 계획 추후 1만 명의 주민과 2만 명의 회사원과 학생 유치
- ❖ 건설 시기 : 2001년 5월 - 계속
- ❖ 건축연면적 : 1,080,000m<sup>2</sup>



<바다에 인접한 말뫼 신도시의 항공사진>

## ❖ 지구특성

- 환경적 지속성, 정보기술을 주제로 주거지를 계획.
- 업무시설, 레스토랑, 카페, 보육시설, 학교, 도서관 등이 갖추어진 1천호 규모의 주거지.
- 주거지에 인접한 바닷가 외부에는 넓은 공원을 조성하고 주거지 내부는 작은 클러스터와 중정.
- 주거지 중심축을 수생바이오톱으로 조성하고 바다에서 물을 정화하여 사용.
- 수생바이오톱과 녹지대는 도시 전체의 생태축으로 조성.
- 중앙수로로부터 주거지 내의 공용공간을 흐르는 모든 수공간에 물 공급.
- 100% 에너지 자립 계획



<단지내부의 중정과 터닝 토르소 빌딩>

## ❖ 개발배경

- 스웨덴의 지속가능한 도시 실현의 첫 번째 프로젝트인 Bo01(Living 2001)은 정보기술, 복지, 도시미관 증진을 테마로 녹색도시의 실현을 구현.
- 말뚝지역의 새로운 커뮤니티 형성의 핵심 역할.
- 지속가능한 도시의 새로운 모델, 조경에 대한 아이디어 실험장 역할.

## ❖ 말뚝 신도시에 도입된 개념

- 건물, 중정, 정원, 공원, 플라자 등의 다양한 구성.
- 지역의 재생 가능한 에너지의 이용 : 바람, 태양, 물, 바이오가스를 이용한 전력생산.
- 우수는 개방된 실개천으로 흘러 작은 개울을 만들며 바다로 이어지는 수로를 형성.
- 보행자와 자전거 우선도로의 조성.
- 초기부터 큰 나무를 식재하여 경관관리.
- 생물 다양성 요소를 적극 고려하여 조성.
- 3곳의 new park 조성 : 주거지의 측면에 위치하며 모든 수변에 면하여 바다와 운하에 접하게 계획되었고, 운하는 주거지 전체로 흐르며, 주거지 동측은 운하가 대지의 경계 역할을 한다.
- 쓰레기, 우수 처리를 위한 최신 기술 적용.

## ❖ 토지이용계획 및 동선계획

- 대지는 버려진 항구시설과 공장지대였음.
- 대지는 수변공간을 가지고 있지만 평지에 바람이 많은 곳에 위치하고 쓰레기 매립지로 사용되고 있었음.
- 계획초기에 조경가로 하여금 마스터플랜을 작성 하도록 하여 주택 중심의 신도시임에도 조경이 프로젝트의 중심이 되었고 초기 개발단계부터 조경이 우선 고려되었음.
- 전체 계획은 공원 부지와 바다에 둘러싸여 있어 주거지역이 다양한 규모와 특성을 가지는 중정을 둘러싼 건축배치로 구성되어 있으며, 느슨한 격자 구조를 가지고 있음.

- 건물의 형태는 대지와 바람에 대한 자연특성을 반영한 구조로 되어 있음. 바닷가에 위치한 건축물은 방풍역할 하도록 반영되어 있음.
- 내부와 외부의 구조, 오픈 스페이스는 북유럽의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설계되었음.
- 건축은 현재 1,000호의 중고층 집합주택, 테라스 하우스, 단독주택이 완성되었으며, 지역주민 1만 여명과 직장인과 학생 2만 여명이 활동하는 신도시로 추진 중에 있음.

#### ❖ 녹지 및 오픈스페이스 계획

1.Ankarpaken(Anchor Park) : 방파제에 조성되었으며 자연 지형을 살려 만든 해변에 스웨덴의 생태적인 요소를 살린 바이오톱 조성

2.The Sundspromenaden(Quayside Promenade) : 말뚝 주거지역 주변의 해안가의 자원인 돌과 나무를 사용하여 긴 해변공원을 조성. 주변계획과 대비되는 단순한 설정과 여름철 일광욕을 즐기는 민족적 특성을 반영. 3곳의 공원 중에서 이용 강도가 가장 높은 공원 임.

3.The Daniaparken(North Park) : 말뚝신도시 개발에서는 모든 계획에 있어서 녹지공간이 0.5 이상 되도록 계획하고 내부의 중정은 생태적 지속성과 관련하여 Greenpoin로 측정 되었음.

\* 계획지역 내부에는 큰 나무들을 심어 녹지를 구성하고 녹지계획이 전체 계획에서 기적인 관리계획에 반영되어 건축계획과 동일하게 진행되었음.

\* 계획지역 내부의 과감하게 느껴지는 넓은 수공간, 연못, 바이오톱 등을 다양한 방법으로 조성하고, 중정과 공용 공간 사이에는 주변생태계를 반영한 식생을 도입하였음. 또한 개인정원, 어린이공원 등이 풍요롭게 조성되었음.

#### ❖ 우수와 바닷물의 활용

사업지역 중심과 주거지역의 수공간은 바닷물을 정화하여 중앙수로에 흐르게 하는 기법과 우수는 개방된 실개천으로 모아지도록 되어 있음. 단지의 모든 지역에서 우수가 원활하게 모아 질 수 있도록 설계되었음.

#### ❖ 자원절약과 재활용

모든 단지의 폐기물은 분리 수거되고 파이프로 연결된 관로를 따라 유기성 폐기물이 처리 되도록 적용했음. 또한 우수를 이용하여 각 가정의 화장실 용수를 공급하여 물순환을 고려하였음.



<단지 내부에 설치된 우수침투 시설과 물길>

<우수 침투를 고려한 시설>

#### ❖ 주택유형 및 디자인

단지 내에는 중정을 배치하여 차량 접근이 배제되었고 녹지와 수공간이 모든 주거 공간에서 보일 수 있도록 함. 사용된 건축자재는 재활용이 가능한 소재를 사용하였음. 건축에 사용된 모든 자재는 스웨덴 정부의 유해물질 목록에 등록된 소재와 제품의 사용을 엄격하게 제한 하였음. 젊은 건축가의 참여를 통해 참신한 디자인이 가능하도록 하였음.

#### ❖ 100% 에너지 자립계획

지역의 에너지는 100% 지역 자체에서 해결하는 방식을 지향. 난방을 위해 지하 90미터에서 끌어 올리는 지하수 사용. 음식물 쓰레기를 발효시켜 나오는 바이오 가스

와 폐기물을 소각하여 나오는 소각열로 난방을 공급하는 지역난방 방식 채택. 태양 열 발전(전체의 15%)과 바람이 강하고 많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풍력 발전으로 전기 에너지를 공급하는 방식.

하수에서 나오는 영양분을 공원과 조경에 사용되는 나무와 식물에 공급하고 금속 추출물들은 재생하는 방식을 통해 에너지뿐만 아니라 하수까지 지역 자체 내에서 해결.

수변 공간에 사용되는 물은 물을 만드는데 에너지와 화학 물질이 사용되는 수돗물이 아니고 빗물만을 사용. 수변 공간은 여름의 더위를 식히고 겨울의 추위를 막아 주는 에너지 저장 창고 역할을 하도록 의도하고 있음.

#### ❖ 저에너지형 교통시스템 구축

교통의 문제에서 자동차의 사용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직사각형으로 잘 구획된 평평한 지대의 이점을 살려 짧은 거리는 직접 걸어 다닐 수 있도록 했고 자전거를 단거리 이동의 주요 수단으로 만들기 위해 자전거 도로를 체계적으로 조성.

외딴 지역의 버스 배차 간격을 최소화하고 버스는 스웨덴의 대도시처럼 에탄올 버스를 사용하여 환경 친화적 연료 채택. 스웨덴의 버스는 95%이상이 에탄올을 연료로 사용하는 환경 친화적 교통수단으로 정평이 나 있음.

#### ❖ 말뫼 신도시의 지속가능한 계획요소

분야	계획요소	계획원리
토지이용	교통	-말뫼 도심과 가까운 항구 지역에 위치 -차량의 사용을 줄이기 위해 차선 제한 -중정의 건물과 주요 가로공간에 작은 녹지와 공원을 조성하여 보행자 전용도로 조성 -자전거 전용도로 확보
	녹지 및 오픈스페이스	-3개의 다른 조경가들이 계획한 도시공원 조성 -지붕, 발코니, 중정등 주거동 외 공간은 피복도를 최소화하여 녹지 공간 조성

		-Green point : 녹지공간 사용에 대한 도시계획의 중용한 제한 사항 설정 -중정 내 다양한 비오톱공간 조성
자연자원 이용	수 자 원	-바다에 인접하여 단지 내를 순환하는 수자원 이용시설 조성 -바닷물을 정화하는 시설설치 -바닷물 및 상수, 중수를 복합적으로 활용하는 계획
	폐 기 물	-유기성 폐기물은 따로 관으로 수집
에 너 지	태양에너지	-건물의 지붕과 벽에 태양광 전지판을 설치하여 운영
건 축	건축재료 및 설비	-저가의 재료를 사용하여 계획

#### ❖ 그린 포인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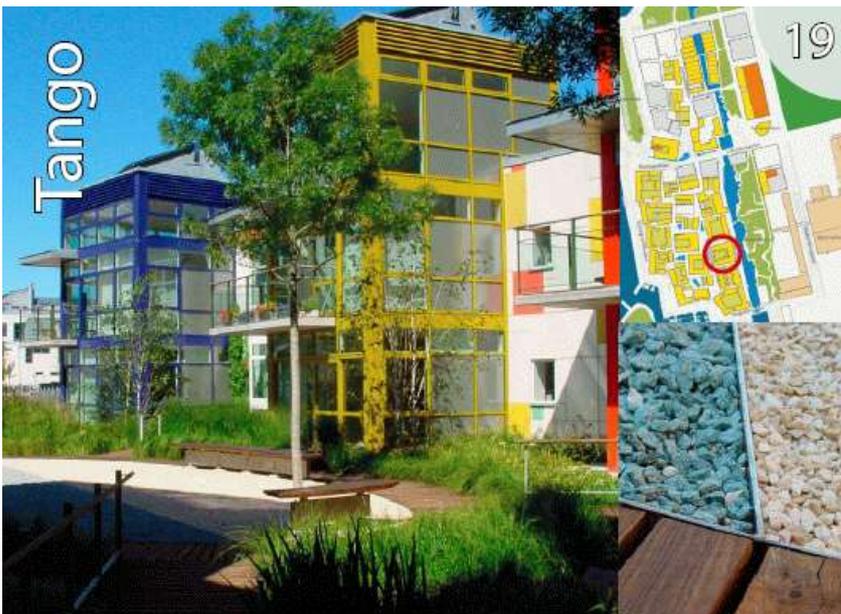
나무는 0.4점, 지붕을 잔디 등으로 덮으면 0.8점등의 점수를 주는 방식으로 모든 건축물들이 최소한 0.5점이 되어야 함. 공동주택과 같은 건물들의 경우에는 정원의 흙 두께와 야생 식물의 분포도, 새집 설치 유무 등을 세심하게 따져서 건축허가 결정.



<카이플라츠01 이 주택은 바닷가로부터의 방풍계획을 적용하여 5층으로 설계 다양한 창호를 도입하여 건물의 디자인 요소를 적용>



<도시의 중앙에 넓은 물길을 조성해 도시의 기온조절과 경관의 효과를 최대한 도모>



Prisat hus väcker uppmärksamhet

## 2. 건축예술의 집합 Ørestad 신도시 (덴마크)



Ørestad 신도시는 유럽에서 가장 큰 도시 개발 프로젝트 중 하나.

위 치 : 코펜하겐 공항과 도시 코펜하겐의 사이에 위치

거주인구 : 주거 20만 명, 경제활동인구 80만 명 학생 2만 명 유치 목표

건설시기 : 2013년 완공예정(사업기간 20년)

도시계획면적 : 31km<sup>2</sup>

건축물용도 : 상업 및 오피스 빌딩 60%, 주택 20%, 문화, 서비스, 무역 및 교육 기관의 건물 20% 아파트 건물, 공공 및 민간 기관과 기업이 포함 되어있음.

### ❖ 지구의 특성

- 건축사업 이전에 도시기반인 녹지와 수경축 조성, 대중교통체계의 확보
- Ørestad 신도시 전체면적 310 헥타르의 30%가 공원이나 자연 지역으로 구성. Ørestad의 그린 랜드 바다 남쪽 72헥타르에는 저수지, 공터, 갈대 습지, 숲이 있어 다양한 동물과 식물이 서식하고 아름다움 풍경을 제공.
- 공항으로부터 5분 코펜하겐 도시로부터 10분, 자전거와 경전철 등을 통한 최적의 도로망과 대중교통체계 확보
- 1992년 Ørestad 법을 제정하여 사업이전에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제도 확보

- 법제정에 따라 건축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해 Ørestad 신도시 개발계획 확정하고 국제 공모전 추진
- 1994년 11월에 마감한 국제공모전에서 4개의 후보작품을 선택하고 1995년 상반기에 후보작품에 대한 공개토론회를 통해 획기적인 제안한 핀란드의 건축가 팀 (ARKKI)의 작품이 선정되고 Ørestad 신도시 기본계획으로 채택
- 핀란드 건축가팀에서 마련한 마스터플랜을 충족시키기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국제환경기준과 디자인을 기본전제로 우수한 건축물을 확보하기 위한 공개경쟁 실시
- 코펜하겐의 오래된 건축물과 도시의 전통을 현대적으로 해석하고 지속가능한 환경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요구
- Ørestad 신도시는 코펜하겐의 구도심을 보완하고 발전에 기여하는 개념으로 접근 코펜하겐의 장기발전 프로젝트의 일환
- Ørestad 신도시는 덴마크의 국제 경쟁력 확보하고 강화하기 미래를 위한 전략적 토대위에 대학과 기업, 주민의 삶과 문화, 정보통신 기술의 혁신을 구체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도시임.
- 많은 국제 및 국가 행사, 컨퍼런스, 전시회 및 세미나 등의 활동을 통해 역동적인 학습 환경 구축.



<Ørestad신도시는 아직 완성 되지는 않았지만, 매우 기대가 큰 지속가능한 도시의 면모를 가지고 있다>

## 혁신적인 거버넌스 - Ørestad그룹

Ørestad그룹은 Ørestad 도시화와 도시개발 과정에서 도시 구성원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교류를 통해 활력이 넘치는 지역문화를 창출하는 목적으로 조직.

코펜하겐대학 주도로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음.

신도시의 내재적 가치를 새로운 지역공동체 형성과 도시 공간 안에서의 네트워크 사회의 견고한 구축을 위한 거버넌스 조직.

정부기관과 민간단체와 기업을 연결하고 협력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사회와의 교류 협력을 통해 삶의 질 개선과 풍부한 문화생활, 새로운 프로젝트의 실험과 새로운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형성.

원활한 협력을 하기 위해 Ørestad지역의 도시 계획 및 도시 설계와 새로운 협력의 방법을 모색하고 강력한 비전을 이루도록 Ørestad그룹은 Ørestad도시 개발 계획의 초기단계부터 함께 참여하고 있음.

Ørestad그룹의 구성은 공공 및 민간 기업, 지역 주민, 평생교육위원회, 주요 대학, 덴마크 방송공사가 참여하고 있음.

Ørestad의 북쪽에 있는 건물에 사무실을 두고 파트너의 정보소통과 프로그램을 촉진시키기 위한 연구 진행.

Ørestad그룹은 파트너의 공통관심과 영역을 확보하기 위해 다각적 노력을 하고 있음. 특히 타분야와 그룹 사이의 공간학문과 기술, 지식의 역동적 발전을 추구하고 있음. 지역공동체의 모든 학문과 기술, 지식을 축적하고 교류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질적 향상을 추구하고 있음.

Ørestad그룹은 Ørestad 프로젝트에 실효성 있는 참여와 효과를 위해 대안을 마련하고 혁신적인 변화를 주도하고 있음.

Ørestad그룹은 신도시 건설과 창조적 도시,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공간과 시스템을 만들고 서로 다른 그룹과 협력하는 새로운 방법을 적용하는 실험 연구실로 국내 및 국제적인 명성을 얻고 있음.

Ørestad그룹의 시도는 Ørestad의 나머지 미래를 계획하고 지속가능한 도시계획과 뉴타운개발과 신도시개발에 좋은 프로세스(Good Governance)의 사례가 될 것으로 전망

## **주요사업**

커뮤니케이션, 홍보 및 웹사이트, 뉴스 레터 및 새로운 미디어를 통한 활동  
이벤트 계획 및 도시 공간을 활용한 활동 및 문화행사  
Ørestad 시민과 Ørestad에 있는 학생, 직장인, 기업 간의 네트워킹을 위한 활동  
시민이 변화를 이끌어 가는 프로젝트 작업과 연구 지원

## **시민 스스로 도시의 삶과 공간을 만들어 가는 도시 덴마크 최대의 실험**

### **- 지역위원회**

#### **[활동원칙]**

- 지역의 미래 발전을 위한 환경과 경관 계획 원칙 수립한다.
- 지역위원회는 환경과 경관 계획에 관심 있는 지역 주민의 참여와 학습에 대한 책임을 가진다.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시민 회의, 토론을 지역의 공간에서 행사를 개최하되 많은 주민이 참여 할 수 있도록 저녁시간에 개최한다.
- 환경 계획을 법적 구속력이 없다.
- 지역 주민과 이해 관계자들이 생산한 지역의 미래계획은 지역위원회를 통해, 정치

인 및 행정 기관 모두에 의해 도시의 지역의 지속가능한 개발 목적으로 사용 될 수 있다.

### **크로스로드(Cross Roads)**

덴마크는 네트워크 사회를 선도하는 문화,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기술개발을 위해 2002년부터 크로스로드를 개발하기 시작했다. 대학, 민간기업, 공공기관이 컨소시엄 형태로 연구하고 있는 `리빙 랩(Living Lab)`이 운영 중.

2005년 현재 코펜하겐 IT대학 등 4개 대학, 노키아, HP 등 5개 민간기업, 덴마크 방송, 왕립도서관 등 13개 공공기관이 입주.

크로스로드의 R&D환경을 구축하고 사용자 중심의 기술 및 서비스 개발을 위한 테스트베드 역할을 수행. 연구가 진행 중인 모바일 중심의 위치기반서비스, 상황인지 서비스, 버추얼 교육 등에 대해 1만2000여명의 학생들이 시범적으로 사용하고 있음.

또 유선망을 기본으로 대학과 공공시설 내에는 무선 LAN이 구축돼 있으며 IT키오스크를 설치해 건물 내 어디에서나 인터넷 접속 가능.

크로스로드를 통해 축적된 첨단기술과 노인에 대한 인터페이스측면에서 접근하는 최첨단 노인주택 프로젝트 진행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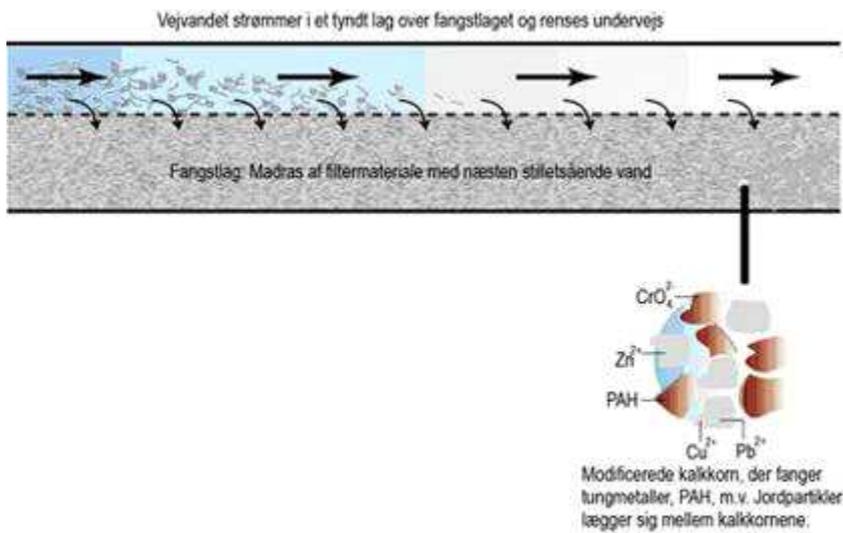
이 프로젝트의 핵심적 목표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함께 공유하고 시너지를 확대해 국가경쟁력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음.

Ørestad의 실험적인 도시창조가 어디에서나 효과가 발휘 되도록 문화, 비즈니스, 대학과 가정 사이의 커뮤니티가 자유롭게 형성되도록 의도되었음.

덴마크의 현재의 경쟁력을 향상하기 위한 새로운 프로젝트, 새로운 제품, 사회적 상호 작용과 지식의 새로운 형태에 대한 창조적 영감의 도시구축이 핵심적 목표.



<Ørestad 신도시 건설에서 먼저 교통망과 녹지 수경축이 조성>



<Ørestad에 있는 도시 공원에 오염된 우수를 정화하는 시스템을 적용하여 도로와 경전 철지역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의 미세입자와 중금속을 정화하고 있음>

## 환상적인 꿈의 학교 Ørestad 디자인 고등학교



주 소 : Ørestad 신도시 벨라센터 500미

터 인근

클라이언트 : 코펜하겐시.

완 공 :2006년

규 모 : 12.000 m<sup>2</sup>

예산 : DKK 200 mio. (€ 27 mio 또는 \$ 32.5 mio).

설계자 : 3XN 건축

덴마크의 새로운 교육 정책의 비전을 가지고 만들어진 Ørestad College.

Ørestad 신도시가 지향하는 이념인 의사소통, 상호교류 등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얻겠다는 목적에 맞게 설계되었음.

학교 내 전 지역에서 무선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음.

수업의 방식은 단순히 한명의 강의자와 그것을 듣는 수강 방식이 아닌 소그룹으로 나누어 서로 토론하며, 하나의 목적을 향해 상호 협력하는 관계로 이루어지고 있음.

건물 내부는 자연채광이 혁신적으로 도입되었고 빛을 감지하는 센서를 통해 차양개폐가 가능.

내부공기순환 시스템을 도입하여 에너지 사용을 최소화하는 공법 적용



<그룹별 자유로운 활동이 가능하고  
창의적 활동이 가능한 공간>



<개방성을 고려한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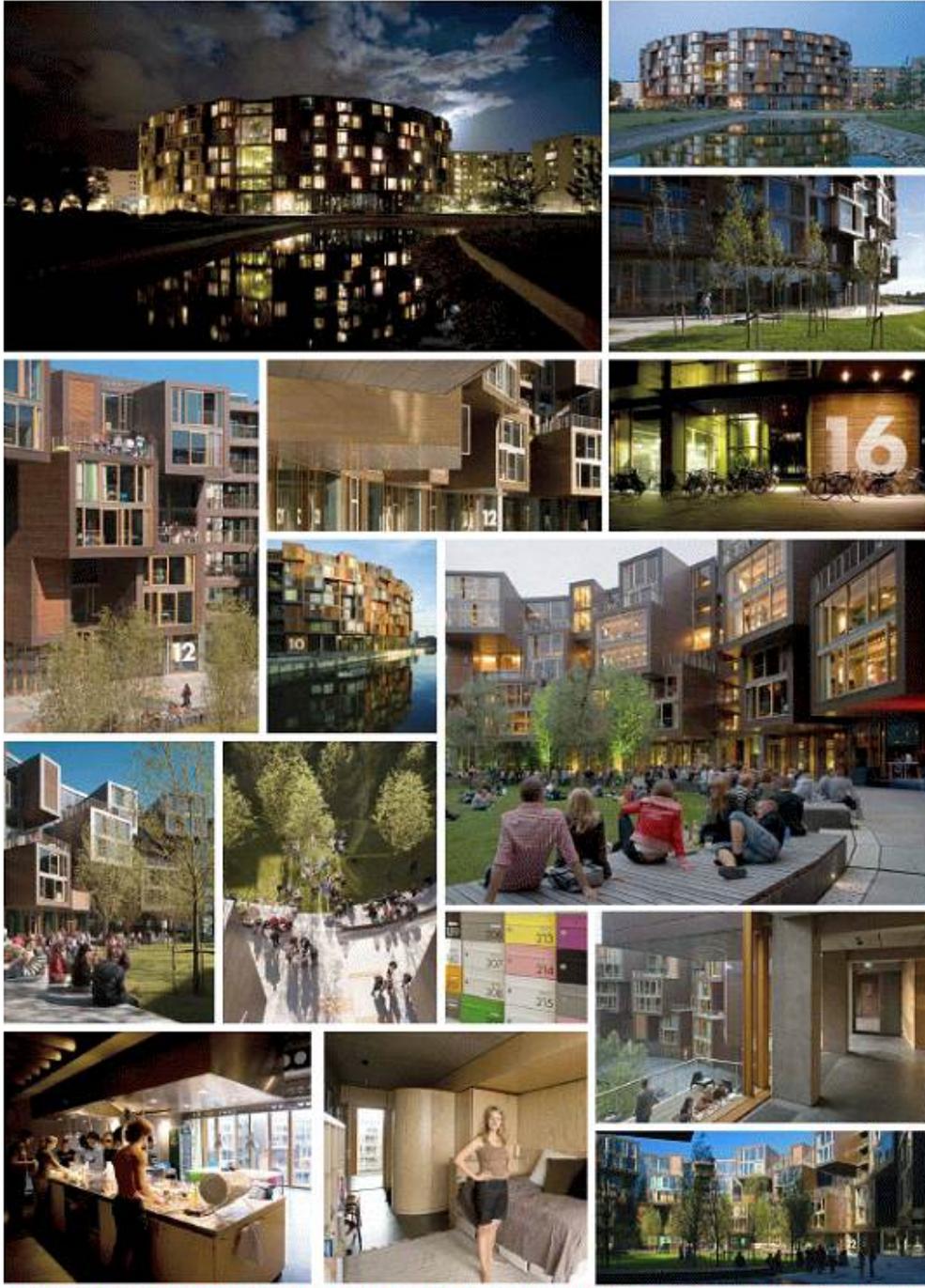


<자연채광과 교실이외의 활동이 가능한  
공간배치>



<곡선의 유연성과 4개 층으로 연구영역이  
구분>

## 평등과 공동체의 상징 Tietgen 기숙사





**위 치** : Tietgenkollegiet는 Copenhagen IT 대학, 덴마크 방송 공사와 인접

**건축배경** : 덴마크 Nordea 재단으로부터 기증받아 Tietgenkollegiet 재단이 관리

**부지면적** : 13,190m<sup>2</sup>

**건축면적** : 7층 26,828m<sup>2</sup>

**건설기간** : 2003년 착공 2006년 완공

**용 도** : 대학생 기숙사

### 건물에 도입된 개념과 개요

- 중국 남부 하카의 전통 원형주택의 공동체적인 생활과 주거형태를 착상하여 설계
- 원형으로 설계한 철학적 배경은 개별주거와 공동시설이 결합하는 형태로 함께 만들어 가는 마을로 평등과 공동체를 상징
- 원형의 360°를 360개의 객실로 구성하여 모든 객실에서 내부 중정을 평등하게 공유
- 1층은 카페, 컨퍼런스 홀, 자전거 주차장, 회의실, 학습실, 컴퓨터실, 음악 감상실, 세탁실 등의 공동시설을 배치하여 편리성과 원활한 소통구조 도모
- 객실은 26~33m<sup>2</sup>의 다양한 크기로 제공되고 부엌, 보조 룸, 라운지, 테라스 등이 있어 공동주택의 개념으로 건축되었음.
- 독특한 건물 디자인으로 방문자가 급증해 건물안내 프로그램을 별도로 마련하여 약 1시간 정도의 안내를 진행하는 프로그램 마련 비용은 DKK 500.
- 원형 디자인에 블록 형태의 모양을 표현하고 외관은 참나무와 구리소재를 사용하고 내부는 노출 콘크리트

- 지진에 강하고 에너지 절감 효과를 최대한 발휘하기 위한 구조
- 다리건설에 사용하는 공법을 채용하여 건설시기와 비용 절감



<도시 전체에 도입된 물길과 녹지체계, 경전철과 도로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지도>

모듬토론

지속가능발전과 녹색실천

---

마을이 녹색과 만나  
그리는 미래

---

고상준 \* 에듀플랜

---



# 메모



# 메모



소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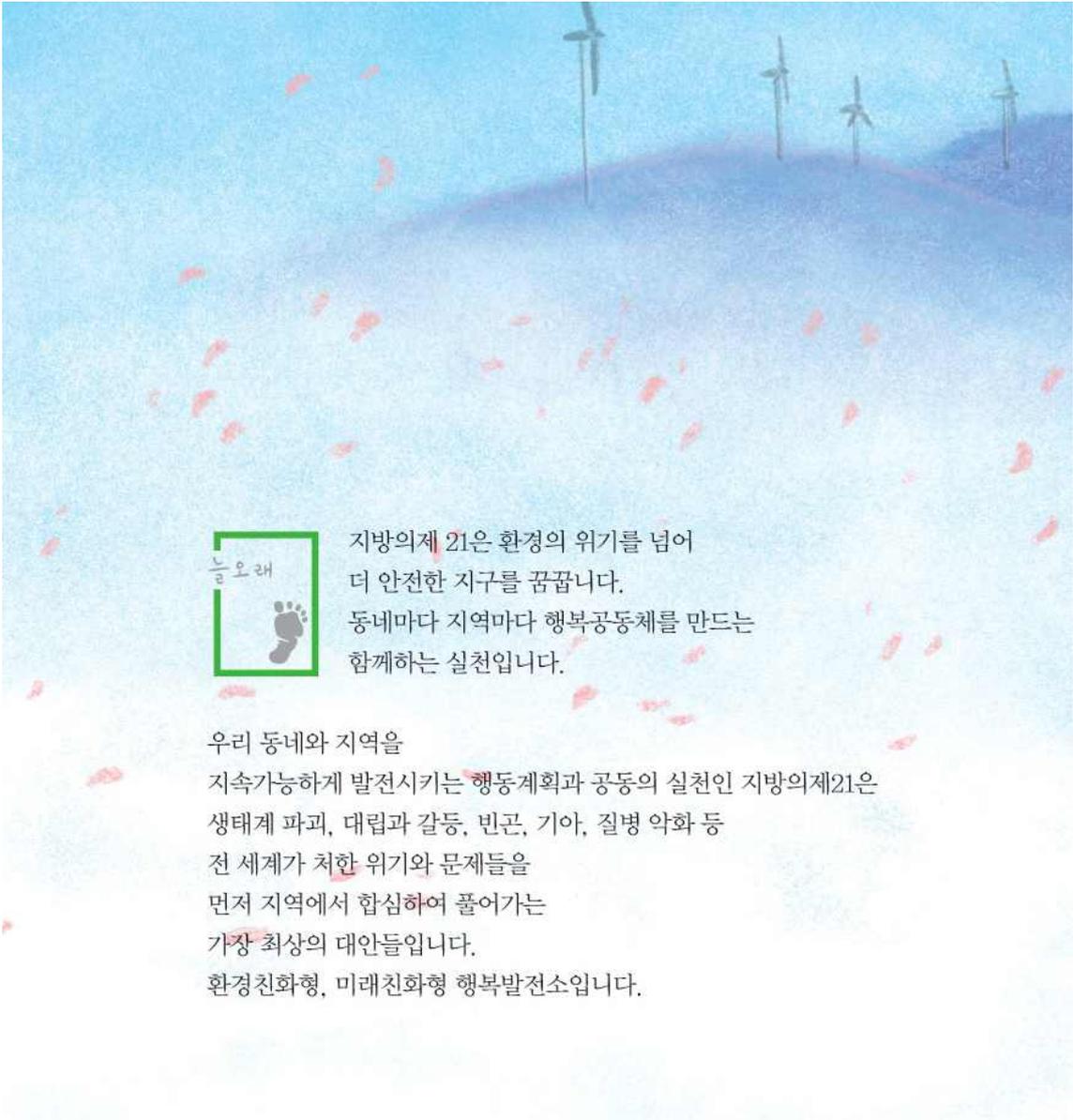
# 지방의제21과 성남의제21 실천협의회

---

---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  
일하고 개발하는 방식을 바꾸어야  
지구는 계속 돌 수 있습니다.  
이제 아낌없이 주는 나무 대신에  
아낌없이 양보하고 절제하고 헌신하는 인류가 필요합니다.





지방의제 21은 환경의 위기를 넘어  
더 안전한 지구를 꿈꿉니다.  
동네마다 지역마다 행복공동체를 만드는  
함께하는 실천입니다.

우리 동네와 지역을  
지속가능하게 발전시키는 행동계획과 공동의 실천인 지방의제21은  
생태계 파괴, 대립과 갈등, 빈곤, 기아, 질병 악화 등  
전 세계가 처한 위기와 문제들을  
먼저 지역에서 합심하여 풀어가는  
가장 최상의 대안들입니다.  
환경친화형, 미래친화형 행복발전소입니다.



지방의제21

Local Agenda21

## 세계가 합의한 원칙 - 지속가능발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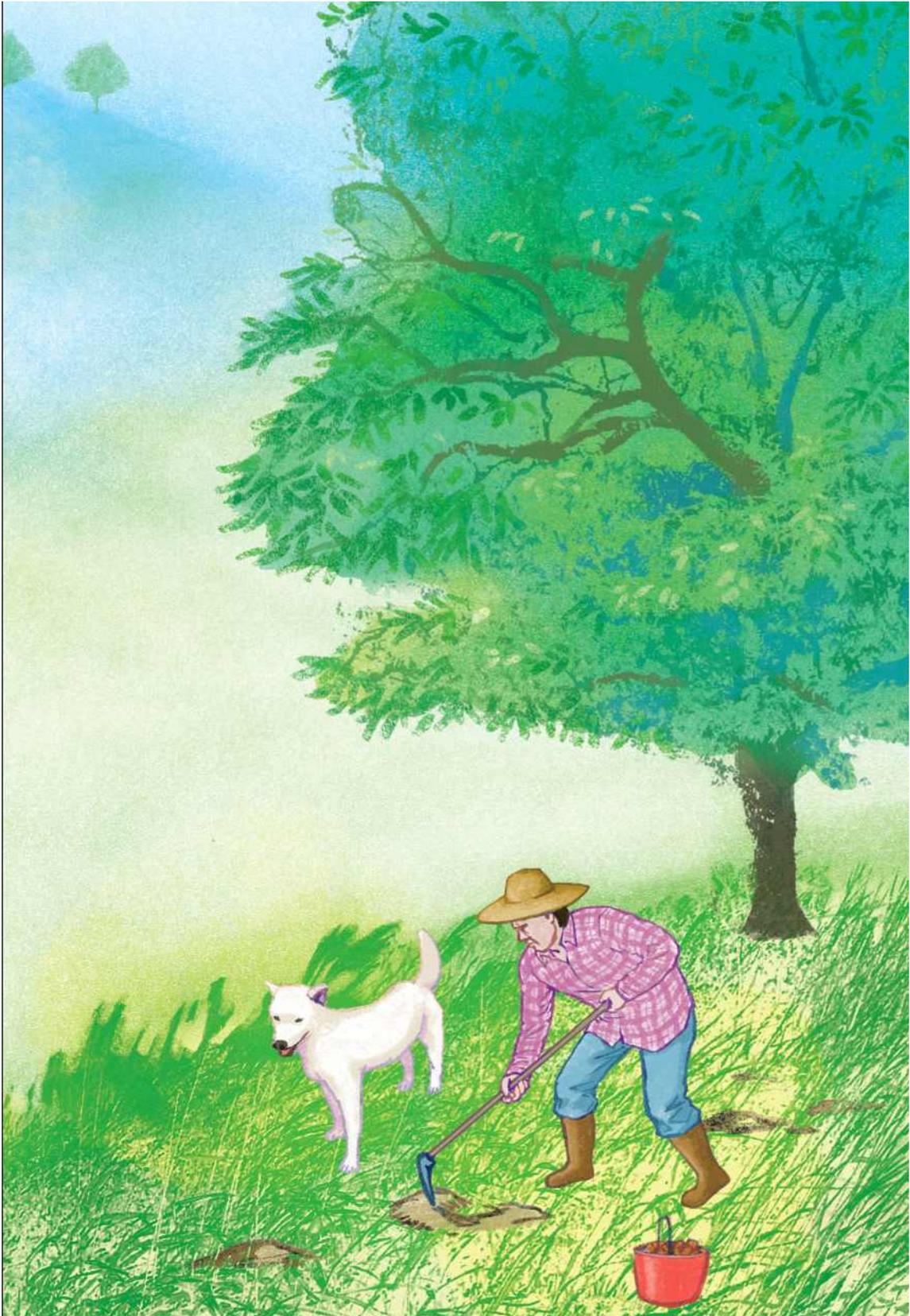
20년 전, 늦었지만 인류는 중요한 깨달음에 도달했습니다. 환경보전 없이 지속적인 경제발전이 불가능하며, 미래를 희생하는 무분별한 개발은 오래갈 수 없다는 자각이었습니다.

### 지속가능발전이란(Sustainable Development)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오래 지속될 수 있는 개발'을 해야 한다는 철학을 의미합니다. 경제성장과 사회발전, 그리고 환경보전을 조화롭게 통합하는 최선의 원칙입니다. 자원과 쾌적한 환경을 다음 세대에 물려주는 일은 물론, 삶의 질을 높이는 노력과 개인의 발전, 형평성과 사회적 통합을 위한 노력 등이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핵심과제들입니다.

###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계획 - 의제21(Agenda 21)

크던 작던 공동체에는 꼭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를 의제(아젠다, Agenda)라고 부릅니다. 의제21은 1992년 179개국 지도자들이 모여 브라질 '리우지구정상회의'에서 발표한 세계인의 합의입니다. 지속가능발전의 범지구적 목표와 행동강령, 사회경제·자원의 보전과 관리, 주요 집단들의 역할, 실천 수단에 대한 행동계획이 담겨있습니다.



### 지역에서 · 먼저 · 행동하자 · 함께

생태보전, 기후변화, 에너지, 사회통합 등 지구적 과제는  
지역사회의 작은 실천들이 없으면 해결할 수 없습니다.

지역에서 최선의 답을 찾는 작은 시작이 세상을 바꿉니다.

“세계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하라(Think Globally, Act Locally)”는  
말의 의미는 바로 이것입니다.



### 지방의제21(Local Agenda21)이란?

의제21이 국가차원에서의 행동이라면, 지방의제21은 지역에서의 행동계획이자 실천입니다. 무슨 일이든 자발적이고 함께 할 때 더욱더 잘 됩니다. 함께 할 때 필요한 것은 나와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합의하는 자세입니다. 지방의제21에서는 지역사회 각 주체들의 참여와 합의를 기본으로 합니다. 특히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중시합니다.



### 거버넌스(Governance)란?

거버넌스는 해결할 과제를 일방적이 아니라 정부와 시민이 함께 결정하고 함께 계획하여 실천하는 협력시스템입니다. 지방정부와 기업, 학계, NGO, 언론, 주민대표 등 지역사회 여러 주체들이 네트워크에 참여합니다. 지방의제21은 거버넌스의 가장 좋은 기회이자 가장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 Local 지방의제21 Agenda21

## Q & A 지방의제21

**Q** 지방의제21 추진기구는 관인가요, 시민단체인가요?

**A** 관도 아니고 시민단체도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과거에는 볼 수 없었던 거버넌스형이라는 새로운 유형의 단체입니다. 관과 시민단체는 지방의제21 추진기구에 주요 구성원으로서 참여하여 의제를 설정하고, 계획을 세우며, 분담된 역할과 임무를 수행합니다. 모두 협력적 네트워크의 일원인 셈이지요. 지방의제21에서는 어느 누구도 우위에 있거나 명령하지 않습니다. 합의만이 구성원을 행동하게 합니다. 추진기구는 이러한 과정이 잘 되게 하는 조직입니다. 행정적 실무를 담당하고, 의제설정과 수립 및 실천을 도우며, 참여자를 조직하거나 홍보하고 교육하는 역할을 합니다.





**Q** 환경운동만 하나요?

**A** 아닙니다. 지방의제21은 환경분야에만 그 범위가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환경 문제가 인간 삶의 모든 분야에 다 연관되어 있듯이 지방의제21은 환경부문, 경제 부문, 사회부문에 다 걸쳐 있습니다. 빈곤하면 환경에 신경쓰지 않습니다. 당장 살기위해 환경을 마구 훼손하며 개발합니다. 지방의제21에서는 수질보전, 생태계보전은 물론 도서관만들기, 교육, 일자리창출까지 지역공동체 발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합니다.

**Q** 어떻게 참여가 가능하나요?

**A** 우선 전생계서 살고 있는 지역의 지방의제21에 대해 아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방자치단체나 추진기구의 홈페이지를 방문하거나, 관련 홍보책자를 보십시오. 그곳에는 의제와 현황, 목표, 지표, 추진전략, 각각의 주체들이 해야 할 행동지침 등이 실려 있습니다. 시민의 자발적 실천은 가장 아름다운 참여입니다. 또한 추진기구나 시민단체 또는 자치단체에서 하는 다양한 행사와 사업에 참여해 보는 것도 훌륭한 행동이자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자발적 실천에서 좀 더 총체적으로 알고 조직적으로 실천하시려면 추진기구에 연락하십시오. 개인의 행동이 없으면 세계는 변하지 않습니다.

# 21세기 꿈이있는 푸른 성남만들기

## 성남의제21실천협의회

### □ 「성남의제 21」을 만든 이유

1992년 브라질의 리우에서 세계환경회의가 170개국의 정상들과 NGO대표들이 모여 개최되었습니다. 이때 지구의 환경보호와 지속적인 건강한 발전을 위해 [의제 21]이 만들어 졌습니다. 의제(Agenda)란 '토의할 과제, 해야 할 일'이란 뜻을 가진 단어로써, [의제21]이란 "21세기의 지구환경 보전을 위해 전 인류가 논의하고 실천 해야 할 과제"를 뜻하며, [지방의제21]은 이러한 과제를 지역차원에서 구현해 나가 기 위한 계획입니다.

[지방의제21]을 만드는 이유는 물론 환경을 보전하면서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지구환경보전은 개개 국가의 국가 환경개선에서 출발하며 개개 국가의 환경보전은 지역적 차원에서 실천되었을 때 그 결실을 거둘 수 있습니다. 지구환경 보전을 위한 노력은 결국 지방에서 구체저인 행동으로 표출 되어야 진정한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두된 대표적인 명제가 "범지구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에서 행동하라(Think Globally, Act Locally)"는 것입니다. 이 명제는 보다 현실적으로 "범지구적으로 생각하고, 광역적으로 계획하며, 지역에서 행동하라(Think Globally, Plan Regionally, Act Locally)"로 확대되어 의미되고 있습니다.

[지방의제21]의 행동계획은 [의제21]에 담긴 원칙과 과제를 각 지역사회의 구체 적인 실천항목의 전략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28조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습니다.

"1996년까지 각국의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는 주민과의 협의와 공감대를 형성하 는 과정을 거쳐 지역사회를 위한 [지방의제21]을 만들기를 기대한다"

이에 따라 우리 성남에서도 [의제21]에 기초를 둔 성남지역에 알맞은 [성남의제 21]을 작성하고, 실천해야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 □ 「성남의제 21」이 가지고 있는 의미

### < 비 전 >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지는 '21세기 꿈이 있는 푸른 성남 만들기'를 성남의제 21의 비전으로 합니다.

### < 의 미 >

오늘의 성남 시민은 물론 미래의 후손들이 윤택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쾌적한 환경과 편안한 생활여건을 만들기 위해 함께 논의하고 실천해야 할 일들을 뜻합니다. 이러한 일들은 '무엇을 보존하며, 무엇을 되살리고, 또한 무엇을 새로 만들어야 하는가' 하는 구체적인 우리 지역의 행동과제를 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행동계획을 만들어 시민, 기업, 그리고 성남시가 함께 실천해가는 전 과정을 내용으로 합니다. 이러한 계획과 실천을 통하여 우리는 '21세기 꿈이 있는 푸른 성남'을 만들고자 합니다.

### < 추진 원칙 >

- 모든 사업의 계획 및 수행은 지역사회의 다양한 그룹이 참여하여 공동추진하며, 사업 수행과정에서 시민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시민들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합니다.
- 시민, 기업, 지방정부 등 시의 모든 제 구성 요소가 동반자의식을 갖고 전부 참여하는 시민-정부 공동 사회운동으로 승화시킬 것입니다.

### < 추진 목표 >

- 지역현안문제 해결 : 도시발전 저해요인 발굴 및 개선
- 환경적으로 쾌적한 도시 조성
- 사회·경제적으로 풍요로운 기반조성
- 문화적으로 건전한 풍토 조성
- 21세기 세계속으로 발전하는 성남 건설

## □ 『성남의제21』 주요 실천의제

- ❖ 살아숨쉬는 탄천과 함께 하는 성남만들기
  1. 소중한 물, 바로 알고 바로 쓴다.
  2. 우리의 물, 깨끗하게 지킨다.
  3. 탄천을 시민문화공간으로 만든다.
  
- ❖ 자연의 품속에서 살아 숨쉬는 성남만들기
  4. 성남지역에 살고 있는 생물 100가지를 안다.
  5. 도시녹지를 두배로 늘린다.
  6. 반딧불이가 살 수 있는 도시를 만든다.
  7. 푸르름이 가득한 학교를 만든다.
  
- ❖ 쓰레기를 줄여 깨끗한 초록빛 성남만들기
  8. 버려지는 쓰레기가 적은 성남을 만든다.
  9. 재활용율을 높여 소각쓰레기를 줄인다.
  10. 음식물 찌꺼기를 남기지 않는다.
  
- ❖ 깨끗함과 여유로움이 있는 도시만들기
  11. 특색있는 도시공간과 기능을 보유하도록 한다.
  12. 토지와 건축물을 환경친화적으로 이용한다.
  13. 걷기 편한 거리를 만든다.
  14. 선진적인 도시경관을 갖춘다.
  
- ❖ 안전하고 편리한 녹색교통 환경만들기
  15. 주차걱정 없는 성남을 만든다.
  16. 어린이가 마음놓고 자전거를 탈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
  17. 대중교통이 사랑받는 성남을 만든다.
  18. 예절바르고 질서있는 교통문화를 정착한다.

❖ 에너지 절약으로 풍요로운 성남 만들기

19. 에너지를 바르게 안다.
20. 에너지를 바르게 사용한다.
21. 에너지를 바르게 관리한다.
22. 항상 푸른 하늘을 볼 수 있는 도시를 만든다.

❖ 공동체가 살아있는 문화성남만들기

23. 지역문화 기반을 구축한다.
24. 시민의 문화역량을 육성하고, 지역공동체를 회복한다.
25. 성남을 앞서가는 정보화도시로 만든다.

❖ 건강하고 함께 나누는 성남만들기

26. 건강하고 안전한 아동보육시설을 만든다.
27. 여성과 남성이 서로 존중하는 사회환경을 만든다.
28. 저소득 주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여 희망을 주는 사회를 만든다.
29. 장애인의 권리를 시민적 권리로 느끼는 사회로 만든다.

참여단체 및 기관

단체 및 기관명		전화번호	비고
자연보호협의회성남지부	조영이	735-8991	
분당환경시민의모임	정병준	702-5610	
그린피플중앙회			
시민연대환경365중앙회	박성필		
사)환경보호국민운동본부 성남시지부	김명렬		
환경지도자협의회	백주희		
환경공해추방연합	박형구		
환경살리기실천중앙연합	나정임		
환경문화시민연대 성남시협의회	서치용		
NGO 환경보호운동	국동철		
사)환경21연대 성남시지부	신경식		
전국환경감시협회 경기도본부	박성기		
녹색소비자연대			
환경지킴이운동본부			
	한선미		
성남소비자시민모임	김경의		
성남YMCA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조희태		
성남KYC	이준호		
172연대 1세대	최은상		
성남그린리더	이선범		
기후코디네이터			
성남에너지실천협의회			
성남녹색성장위원회			
성남의제21실천협의회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하라!

## 녹색생활실천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

일시 \_ 2011년 11월 18일(금) 오전9시~저녁9시

장소 \_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 (제4강의실)



21세기 꿈이 있는 푸른 성남 만들기  
**성남의제21실천협의회**  
The Council of Seongnam Agenda21